

蘇聯經濟學에 있어서의 『價值論』研究 (上)

張 贊 燮

(關 東 大 學 · 專 任 講 師)

차 례

- | | |
|------------------------|--------------------------------|
| I 序 論 | VII 蘇聯經濟學에서의 價值論-(2) 消費財와 生産財 |
| II 두가지의 前提—商品과 勞動生産性 | VIII 蘇聯經濟學에서의 價值論-(3) 利潤과 剩餘價值 |
| a) 商品 | IX 스탈린의 맑스經濟學解釋 |
| b) 勞動生産性 | X 價值法則과 蘇聯經濟學者 |
| III 蘇聯經濟에 있어서 擴大再生産 | XI 結 論 |
| IV 맑스의 價值論 | |
| V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價格形成 | |
| VI 蘇聯經濟學에서의 價值論-(1) 解釋 | |

<編輯者註> 本論文은 第11輯에 I~IV까지 掲載하고 VI~XI는 다음會誌에 掲載함.

I. 序 論

資本主義社會의 商品을 예리하게 分析하면서 價值論을 展開시킨 맑스(Karl Marx)는 未來의 社會主義社會의 經濟法則에 대하여 몇번 言及한 바 있다.

『生産手段의 共有에 基礎를 두고 있는 協同社會의 內部에서는 生産者는 그들이 生産物을 交換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生産物에 消費된 勞動이 그 生産物의 價值로서 즉 그 生産物이 가지는 物的 特性으로서 나타나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資本主義社會와 달라서 個個의 勞動은 이미 間接的이 아니라 直接的으로 總勞動의 構成部分으로서 存在하고 있기 때문이다.』¹⁾

“고타綱領批判”에서 맑스는 資本主義社會가 止揚된 未來社會에 있어서는 生産物의 價值는 그 存在意義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맑스의 同役者인 엥겔스(F. Engels)의 말을 引用한다면 보다 明確하게 未來社會에 있어서의 價值問題를 中心으로 한 經濟法則의 作用을 엿볼 수 있다. 『生産手段이 社會에 의해서 掌握됨과 同時에 商品生産은 除去되고 그와 同時에 生産者에 대한 生産物의 支配가 除去된다.』²⁾

맑스의 共產主義의 創始者라고 할 수 있는 上記의 두 사람은 生産手段이 社會的 所有로 되면 生産者들의 自由로 意識的인 結合에 基礎를 두고 있는 未來社會에 있어서는 商品生産은 없어지며 그와 同時에 價值法則도 作用하지 않게 되며 社會的 生産은 劃一的이며 計劃적으로 運營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면 이와같은 맑스·엥겔스의 命題가 具體化되었다고 推定할 수 있는 蘇聯의 共產主義社會(고타綱領批判에 의한다면 低段階에 해당하므로 社會主義라고 말함이 더 適格이다)에서

1) K. Marx: 고타綱領批判 p. 16.

勿論 Marx는 完全히 價值論을 無視하는 것은 아니었다. 資本論 三卷 p. 221과 p. 892에 資本主義 아닌 社會에서의 價值論을 論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嚴密한 意味에서 社會主義下에서 價值法則이 作用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2) F. Engels: 空想から 科學への 社會主義의 發展, (日本) 大月書店版 p. 239.

는 商品生産은 存在하지 않으며 價値法則은 作用하지 않는 것인가?

蘇聯의 一部 經濟學者들은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 肯定的인 態度를 보여 주고 있다. 즉 白露西亞・조베트社會主義共和國 國家計劃委員會에 所屬하고 있는 엘·아베두마는 다음과 같은 意見を 玆력하고 있다.

『社會主義下에서는 生産手段과 消費物資가 相互 依存하고 있지 않는 私的 勞動의 生産物이 아니므로 商品이 아니다. 따라서 社會主義下에서는 價値法則은 作用하지 않는다. 價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國營工業의 生産에 對象化된 勞動의 量을 規定하는 完全한 可能性이 蘇聯에는 存在하고 있다. 原價 價格 利潤은 價値 혹은 價値의 部分的인 表現은 아니다.』¹⁾

蘇聯經濟에 있어서 商品生産과 따라서 價値法則의 作用을 上記와 같이 否定하고 있는 學者가 있다는 것은 맑스・엥겔스線에 追從하는 以上 論理上 妥當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部類에 屬하고 있는 學者中에는 이와 正反對의 見解를 玆력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즉 佛蘭西의 經濟學者 메렐랭(Clarles Bettelheims)은 蘇聯의 計劃化의 理論은 맑스主義에 立脚하고 있으며 따라서 勞動價値說에 그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²⁾

메렐랭은 蘇聯의 共產主義下에서도 資本主義의 商品生産에서 適用되고 있는 맑스主義가 集大成한 勞動價値說이 基礎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以外에도 또 다른 見解가 있다. 이것은 맑스의 搾取라는 觀點에서 蘇聯經濟를 分析해 보고자 하는 試圖이다. 이의 代表的인 見解로서 獨逸의 바겐레너(Günther Wagenlehner)를 例로 들 수 있다. 바겐레너는 蘇聯의 生産物이 맑스가 말하는 소위 $C+V+M$ 라는 價値體系로 分類될 수 있다는 것을 立證하고 따라서 勞動이 廣範圍하게 搾取 當하고 있다는 關係를 포착함으로써 蘇聯經濟는 맑스가 말하고 있는 資本主義와 아무런 差異가 없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³⁾ 換言하면 바겐레너는 蘇聯의 共產主義가 資本主義와 實質적으로 같다는 見解를 玆력하고 있다.

우리는 以上の 檢討에서 蘇聯經濟의 價値法則의 適用與否를 둘러싸고 세가지의 概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概念은 서로 相容相納될 수 없는 概念들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自問할 수 있을 것이다.

果然 蘇聯經濟를 支配하고 있는 價値法則은 무엇인가? 價値法則이 作用하지 않는 經濟인가? 價値法則이 作用하는 經濟制度인가? 그렇다면 資本主義와의 實質的인 差異란 무엇인가? 그리고 價値法則이 作用하는 것이라고 前提하고 있는 경우, 價値法則은 歷史上에 進行되고 있는 具體的인 蘇聯經濟와 마찰없이 運營되고 있는 것인가?

本論은 이와같은 여러 問題를 價値論을 中心으로 하여서 맑스理論과 具體的인 蘇聯의 經濟가 어떠한 相關關係를 維持하고 있는지를 檢討해 보기로 하였다.

II. 두가지의 前提—商品과 勞動生産性

a) 商 品

資本主義社會에서 商品⁴⁾이 生産된다는데 대해서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맑스가 그의 名著인 “資本論”을 著述할 때 商品分析으로 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資本主義社會가 아닌 經濟社會에 있어서 生産되고 있는 것이 商品이나 아니냐라는 問

1) 木原正雄譯編：價値と價格の理論，p. 63.

2) Clarles Bettelheims: *Les Problèmes Theoriques et Pratiques de la planification*, p. 58.

3)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862.

4) 商品은 다음의 두 條件이 成立될 때만 商品이 될 수 있다. ① 人間의 欲望을 充足시키는것 ② 自己가 消費하는 것이 아니라 交換하기 위해서 生産되는 財貨.

題는 신중히 研究되어야 할 問題인 것이다. 왜냐하면 前述한바와 같이 엥겔스는 生産手段이 社會에 의해서 掌握하고 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商品生産은 止揚되는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線을 따라서 資本主義가 아닌 蘇聯의 經濟에 있어서는 商品生産이 存在하고 있지 않다고 主張하는 例를 든바 있다. 이러한 見解는 蘇聯의 農業勞動者勞組中央委員會에 所屬하고 있는 페·이·레비체프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즉 그는 自立的인 商品生産者들의 所有가 되고 있는 生産物만이 商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社會가 全生産物의 所有者인 限에 있어서는 商品生産과 商品交換이 存在할 수 있는 餘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命題는 其他의 蘇聯經濟學者에 의해서도 支持를 받고 있다.¹⁾

이와같은 主張에는 論理的인 妥當性이 있다. 商品이라는 것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여 生産되는 것이기 때문에 本質적으로 資本主義의 概念인 것이다. 그러나 파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供給者가 서로 競爭의 營利를 追求하는 것이 止揚된 社會에 있어서는 商品은 本質적으로 商品이라는 概念과는 無關한 것이다. 이런 面에서 上記者들의 發言은 正當한 것이다.

그러나 經驗이 가르킨바에 의한다면 蘇聯의 經濟에 있어서는 商品의 性格을 지닌 生産物의 生産이 存在하였다는 事實이다. 本質적으로 商品이 存在할 수 없는 社會에 商品이 存在하고 있다는 것은 非論理的인 現象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現象을 合理化하기 위하여서 스탈린은 「蘇聯邦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經濟의 諸問題」라는 論文속에서 두 個의 社會主義의 所有形態와 그 사이에 있어서의 交換, 勞動者의 消費財購買라는 面에서 商品現象을 說明하였다. 스탈린은 商品生産은 消費財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生産財에 있어서는 商品이라는 概念은 存在할 수 없고 商品의 外被를 입고 있는데 不過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故로 生産財의 生産에는 價値法則의 規制를 받지 않는다.)

蘇聯에 있어서 國定教科書라 할 수 있는 “經濟學教科書”(改訂第三版)에서도 이러한 見解를 反映하고 있다.

『社會主義下에서의 商品生産은 特別한 種類의 商品生産이다. 그것은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가 없으며 資本家가 없는 商品生産이다. 이와같은 社會主義下에서의 商品生産의 必然性은 社會主義의 生産의 두 個의 基本的 國家形態와 룬호즈의 形態의 存在에 의해서 惹起된다.』²⁾

大部分의 蘇聯經濟學者들은 이와같은 見解에 同調하면서 蘇聯에서도 商品生産이 可能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見解는 全體로서의 勞動者가 自己들의 所有物資를 商品으로 買入하여야 한다는 矛盾을 解決해 주는 것은 못되는 것이다. 蘇聯에 있어서 生産된 것이 商品과 同一視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定義가 내려져야 하는 「特殊商品」인 것이며 그와 反面에 萬一 商品生産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原則적으로³⁾ 價値論을 論할 수 없는 것이다.

本論은 上記의 論難과는 關係없이 價値論을 檢討하기 위해서 蘇聯經濟에서는 商品生産이 可能하다는 것을 假定한다.

b) 勞動生産性

勞動生産性的 向上이 經濟發展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고 있음은 理論上으로도 經濟적으로 證明된 바다. 이와같은 모든 現象은 資本主義諸國에 있어서는 그대로 適用된다. 美國의 例를 든다고 하더라도 生産性は 年 2퍼센트⁴⁾로 增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 1) 例를 들면 고바레브스키는 生産手段은 그 流通이 所有者의 交代를 동반하지 않는 限 商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 2) 蘇聯科學院 經濟研究所: 經濟學教科書(日本版) p. 809.
- 3) 勿論 商品生産없이도 價値論을 論한다는 學者도 있으나 이것은 捨象하기로 한다.
- 4) D. G. Kousoulas: *Key to Economic Progress*, p. 41.

論議의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蘇聯經濟에 있어서도 勞動生産性은 經濟發展의 中心問題인 것이다. 왜냐하면 勞動生産性은 經濟發展速度(成長率) 生産費 資金 國民所得의 크기와 그 分配 勞動力의 分配를 規定하는 要因이기 때문이다.

前記의 “經濟學教科書”에 의한다면 蘇聯에 있어서 國民所得은 끊임없이 增加하고 있으며 그것도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 보다 훨씬 빠른 速度로 增加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國民所得이 急速하게 增加한 것은 (1) 社會的 勞動生産性的 向上 (2) 物質的 生産部面에 從事하는 勞動者의 數의 增加라는 두가지 要因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두 要因中에서도 國民所得增加分の 20퍼센트는 勞動者의 數의인 增加에 起因하는 것이고 나머지 80퍼센트¹⁾는 勞動生産性的 向上에 의해서 取得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모든 産業部門에 最新의 技術을 導入하려고 最大의 努力을 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에 있어서의 勞動生産性向上은 다음과 같은 여러 基本的인 要因에 起因하는 것이다.

- (1) 技術의 進步 (2) 勞動者의 教育과 文化水準을 높이고 熟練資格을 向上시키는 것
- (3) 勞動組織과 生産組織의 向上 (4) 技術의 規準化

勞動生産性的 向上으로 因해서 工業生産高가 計數적으로 얼마나 增大되었는가는 다음表를 보아도 可히 推測할 수 있다.

勞動生産性向上에 의한 工業生産高增大指標

	第 1 次 五個年計劃	第 2 次 五個年計劃	第 3 次 五個年計劃	第 4 次 五個年計劃	第 5 次 五個年計劃
勞動生産性向上(%)	41.0	82.0	65.0	36.0	50.0
勞動生産性向上에 의한 生産高의 增大(億루블)	127	419	620	530	1,260
勞動生産性向上 1%當 生産高의 增大(億루블)	3.1	5,109	9,540	14,720	25,200

資料: 現代社會主義講座 II卷 p. 216에서 轉載

公式의인 統計에 의한다면 第1次五個年計劃期間中の 生産高增大는 210억루블이기 때문에 勞動生産性向上에 의한 增大는 3分の2, 第2次五個年計劃期間中の 生産高增大는 522억루블이기 때문에 勞動生産性向上에 의한 增大는 5分の4를 占하고 있다. 그리고 1940—1955年間에는 實로 100퍼센트의 增大率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統計는 앞서 言及한 “經濟學教科書”의 約 80퍼센트와 近似하게 接近하는 것이다.

우리가 勞動生産性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產出된 生産物의 量과 支出된 勞動의 量과의 比率을 意味하는 것으로 理解하고 있다. 즉 勞動生産性 = $\frac{\text{生産成果}}{\text{投入勞動量}}$ 라고 表現할 수 있다. 따라서 勞動生産性은 勞動者에 의하여 生産된 生産物의 量에나 혹은 單位當의 生産物에 支出된 勞動時間의 크기에 表現되는 것이다. 勞動生産性이 向上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考察로서 여러가지의 社會的 生産物을 生産하는데 必要한 勞動時間을 短縮 혹은 節約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임을 곧 알 수 있다. 結局 勞動의 支出를 적게 하고서 더 많은 生産物을 生産하며 社會의 富를 增大시키는 것은 勞動生産性向上이 가져오는 自然的인 結果이다.

우리가 이와같은 概念을 맑스의 表現을 빌려서 表現한다면 勞動力의 購入에 充當되는 可變資本에 比해서 不變資本이 相對적으로 急速하게 增大함으로써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높아지는 것을 意味한다. 맑스의 概念을 導入하여 解釋한다면 生産物의 原價中에서 物的 支出部分은

1) 經濟學教科書, p. 969.

比率로 보아서 相對的으로 增大하지만 資金部分은 減少되고 原價가 減少되는 것을 意味한다.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物的 支出의 價値는 工業生産物에서는 原價의 70퍼센트¹⁾를 차지하고 있다고 報道되고 있다.

그런데 맑스經濟學에 있어서는 不變資本은 生産過程에서 그 價値의 크기를 變形시키지 않지만 資本中에서 勞動力으로 轉形되는 部分은 生産過程中에서 그 크기와 價値의 크기를 變化시킨다. 즉 이 部分은 그 自體의 等價와 剩餘價値를 生産하는 것이다. 따라서 生産過程中에서 勞動支出이 減少되었다는 것은 資金部分이 減少되었다는 것을 意味할 뿐만 아니라 價値創造部分 換言하면 剩餘價値의 減少를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맑스의 理論에 의한다면 그리고 이 理論이 그대로 蘇聯經濟에 適用되는 것이라고 假定한다면 高度의 技術과 機械·設備의 利用을 可能하게 하는 勞動生産性의 向上은 資本蓄積 즉 擴大再生産에 있어서 剩餘價値를 發生시키는 勞動集約의 方法에 比해서 劣勢의 地位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國民所得의 增加의 거의 80퍼센트가 勞動生産性向上에 起因한다는 現實의 側面과 얼마간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맑스의 理論에 의한다면 可變資本의 相對的인 減少는 總資本이 增大함과 同時에 急速히 進行되는데 이것은 相對的 過剩人口를 만들어 내는 條件이 된다. 따라서 資本主義下에서는 勞動生産性向上은 勞動者의 生活水準의 低下를 招來하며 相對的 및 絕對的인 窮乏化를 招來하는 것이다. 그런데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가 存在하지 않고 人間이 人間을 搾取할 수 없는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資本主義에서 存在하는것 같이 勞動生産性을 높이므로써 招來하는 障害는 除去될 뿐만 아니라 擴大再生産이 높은 Tempo를 保障하며 勤勞者의 生活水準과 文化水準을 높이는 基礎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論理的인 歸納보다는 어떤 獨斷이 介在해 있는것 같다. 可變資本만이 剩餘價値를 造出하는 源泉이라면 私的 所有의 有無를 불구하고 樣相은 資本主義에 있어서나 蘇聯經濟에 있어서 같은 것이다.

III.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擴大再生産

어떠한 經濟體制를 불구하고 擴大再生産=資本蓄積은 經濟發展에 있어서 基本的인 要件인 것이다. 資本主義의 再生産過程의 展開에 대해서는 맑스가 그의 『資本論』에서 詳細하게 記述하고 있다. 그러면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맑스의 經濟理論과 어떠한 關聯을 맺으면서 資本蓄積過程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맑스가 묘사한 資本主義의 資本蓄積과 本質的으로 相異한 樣相으로 進行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맑스가 묘사한 資本主義의 資本蓄積과 本質的으로 同一한 形態로 進行되고 있는 것인가?

이와같은 問題의 檢討는 「價值論」을 研究하는데 重要な 貢獻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價値問題는 剩餘價値가 그 中心的 內容이 되고 있으며 剩餘價値는 즉 資本蓄積=擴大再生産과 同意語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資本蓄積이라는 것은 社會의 總生産物의 一部를 새로운 生産의 用途로 轉向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스탈린의 다음과 같은 말에 모두 同意할 것이다.

『現代의 社會는 年年 蓄積을 行하지 않고는 發展할 수 없으며 또한 蓄積은 年年 擴大再生産없이는 不可能하다.』²⁾

蘇聯에 있어서의 蓄積概念은 “經濟學教科書”에 의한다면 國民所得의 一部分인 蓄積фон드

1) 東洋經濟新報社：現代社會主義講座 2卷 p. 313.

2) 經濟學教科書, (日語版) p. 927.

(fonds accumulation)를 生産의 擴大뿐만 아니라 物的 豫備의 造成 非生産의인 社會・文化 фон드의 增大를 위해서도 支出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基本的인 것은 生産의 擴大를 위한 蓄積 фон드인 것이다. 蓄積 фон드는 國民所得에서 消費 фон드(fonds de consommation)를 除한 것을 意味한다. 國民所得概念은 社會的 總生産物에서 消耗된 生産手段의 補填分을 除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等式으로 表現할 수 있다.

蓄積 фон드 = 社會的 總生産物 - 消耗된 生産手段의 補填 - 消費 фон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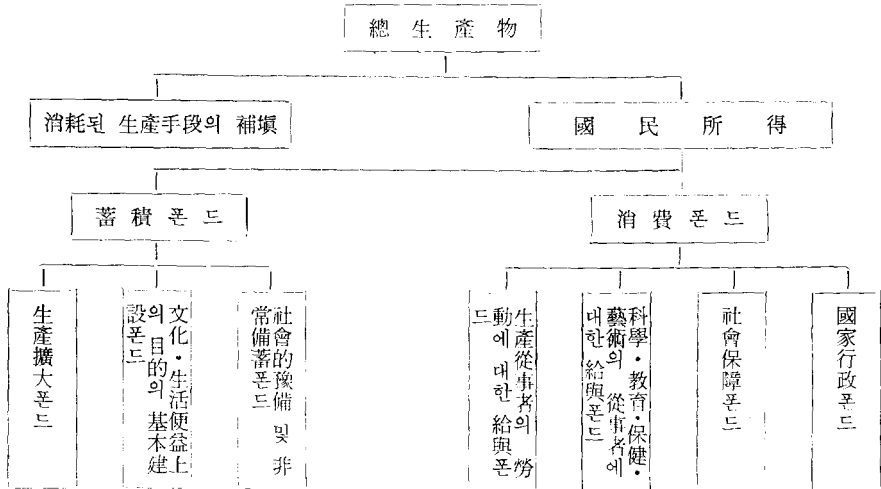
이것을 우리가 恒用 使用하는 用語로서 表現한다면,

蓄積 фон드 = GNP - 減價償却 - 消費라고 할 수 있다. 蓄積 фон드를 消費되지 않은 貯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다음의 式이 適用될 수 있겠다.

$$S = Y - C$$

그러면 이것은 具體的으로 어떠한 內容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蘇聯에서의 總生産物의 分配圖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資料: 經濟學教科書 p. 975.

그러면 蓄積 фон드의 發生源泉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純所得이라는 概念에서 포착할 수 있다. 純所得은 全部가 蓄積되는 것이 아니라 그 一部는 派生的 所得으로서 個人的 消費 фон드로 向하며 다른 一部는 社會的 消費 фон드로 支出한 다음의 殘額이 蓄積 фон드를 形成하는 것이다. 그런데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純所得은 맑스經濟學에 있어서의 소위 「剩餘價值」¹⁾와 同意語인 것이다. 따라서 蓄積 фон드는 剩餘價值에 그 發生原因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重要的 結論에 到達한 것이다. 즉 蘇聯經濟에 있어서도 剩餘價值가 存在하고 있으며, 이 剩餘價值가 擴大再生産의 根源을 이루고 있다는 事實이다.

剩餘價值는 맑스에 의하여 資本制生産方法의 絕對律이라고 言及되고 있는만큼 資本主義의 概念인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와 蘇聯經濟와의 差異를 剩餘價值(純所得)라는 點에 둔다면 兩制度의 區劃線은 많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兩制度의 實質的 差異를 搾取關係에 둘 수 밖에 없는데 「不拂勞動」(crail non payé)을 搾取의 基準點이라 한다면 論理的으로 兩制度는 棼 近似한 樣相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1) 剩餘生産物中에는 去來稅가 포함되기 때문에 純所得=剩餘價值라는 概念에는 많은 困難點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겐너는 이와같은 點에 着眼하여 資本主義와 蘇聯經濟의 差異를 否定하려고 試圖한 바 있었다 함은 이미 言及한 바 있다.

蘇聯에 있어서의 純所得은 1) 國營企業의 純所得과 國庫集中純所得 2) 콜호즈의 純所得으로 形成된다. 國營企業의 純所得은 企業利潤을 말하는 것이며 國庫集中純所得은 소위「去來稅」利潤扣除 社會保險을 위한 資金加算金을 意味한다.

맑스의 理論을 追從한다면 純所得은 國民所得中에서 物質的 生産에 從事하는 勞動者들이 만든 必要生産物을 除한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剩餘生産物을 形成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말은 純所得=剩餘生産物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去來稅」는 剩餘價值가 消費財에 의하여 實現된다고 보아서 純所得의 範疇에 歸屬시켰지만 嚴密한 意味로서는 이것은 消費者부담의 消費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去來稅와 利潤扣除가 國家歲入의 約 60퍼센트를 占하고 있으므로 剩餘價值는 量的으로 많이 減少되는 것이다.

우리는 맑스가 資本主義生産過程은 本質적으로 價值增殖過程이며 剩餘價值的 生産이야말로 資本의 內的 本性이라고 主張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와 同一한 경우가 蘇聯經濟에서도 그대로 適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蘇聯經濟에 있어서도 去來稅(消費稅)와 剩餘價值가 擴大再生産의 二大支柱를 形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國民所得의 4분의1은 蓄積率을 形成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重要性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¹⁾

蘇聯經濟에 있어서 國民所得全部가 個人的 分配에 配當되고 따라서 全部消費의 需要에 支出되지 않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蘇聯의 勞動者들이 自己들의 勞動生産物을 全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一部는 그들의 手中과는 無關한 것이다.

우리는 勞動者가 自己들의 生産物을 全部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現象을 資本主義社會에서는 「搾取」라는 概念으로 表現하고 있다. 그런데 階級的인 分配關係가 存在하지 않고 있으며 剩餘가 社會的фон드의 形態를 取하고 있는 蘇聯經濟에 있어서 이것은 무어라고 表現되어야 할 것인가?

日本의 都留重人²⁾은 勞動者階級이 生産過程에 있어서 그들의 貢獻을 全部 收得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資本主義는 社會主義에로의 形行이 不可避한 것이라고 論議하였는데 蘇聯經濟에 있어서 비록 樣相은 相異하다고 하더라도 勞動者에게 資本主義와 같은 結果가 돌아오게 된다면 勞動者에게는 兩制度의 實質的인 差異가 別로 意味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英國의 스트레취(John Strachey)의 다음과 같은 말은 吟味해 볼 價值가 있으리라 믿는다.

『國民大衆의 生活水準의 主된 決定要因이 蓄積을 取하는 社會的 形態—비록 그것이 私的 利潤이건 社會的 基金이건—가 아니라 그 額數인 것은 明白하게 되었다.』³⁾

1) 蘇聯의 國民所得에 대한 蓄積率은 다음 表와 같다. (蘇聯의 公式發表에 依함)

年 次	
1913	9.0
1925—26	19.9
1926—27	22.9
1928	21.6
1932	26.8
1937	26.4
1940	—
1950	26.0
1955	—

資料: 現代社會主義講座 4卷 p. 50.

2) 都留重人: 現代資本主義의 再檢討 p. 283.

3) Evelyn John Strachey: *Contemporary Capitalism*.

剩餘價値의 生産이 本質上 資本主義의 生産이라고 規定한 맑스의 說明(“資本論” Vol. I, p. 240)은 程度의 差는 있으나 蘇聯經濟에도 適用되며 不拂勞動의 存在가 거기에도 認定된다는 事實은 蘇聯經濟의 價値論을 研究하는데 있어서 重大한 示唆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價値論은 $C+V+m$ 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기 때문이다.

IV. 맑스의 價値論

蘇聯經濟學에 있어서의 價値論을 論하기에 앞서 맑스의 價値論을 再吟味하는 것은 無意味하지 않다. 왜냐하면 蘇聯의 價値論은 맑스의 價値論을 起點으로 하여서 出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맑스의 價値論은 맑스經濟學의 基底를 形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맑스經濟學의 價値論은 勞動價値學說을 集大成하여 完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蘇聯經濟學에 있어서 맑스價値論의 適用與否가 間類點으로 되고 있는 以上 맑스의 價値論을 간략하게나마 再吟味하는 것이 必要한 것이다.

맑스의 價値法則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略述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어떤 商品의 價値의 크기는 그 商品의 生産을 위해서 社會的으로 必要한 勞動時間에 의해서 規定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商品은 資本主義社會以前에 存在하였던 「歷史上의 單純商品」이 아니라 資本主義的으로 生産되는 商品이다. 그리고 社會的으로 必要한 勞動時間이란 現存하고 있는 社會的으로 標準的인 生産條件과 勞動의 熟練 및 強度의 社會的인 平均度를 가지고 어떤 特定の 商品을 生産하는데 必要로 하는 勞動時間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命題에서 當然히 誘導할 수 있는 系論은 生産過程에 있어서 價値의 크기를 變化시키는 것은 資本中에서 勞動力으로 轉形되고 있는 部分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可變資本이다. 換言한다면 勞動力만이 價値增殖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資本中에서 勞動力으로 轉形된 部分은 그 自體의 等價와 그것을 超過하는 剩餘價値를 生産하는 것이다.

이와는 反對로 資本中에서 生産手段—勞動手段 및 勞動對象—으로 轉形되는 部分은 生産過程에서 그 價値의 크기를 變更시키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것을 不變資本이라고 부른다.

이제 不變資本을 C 로 表示하고 可變資本을 V 로 表示하고 剩餘價値를 m 으로 表示한다면 生産過程을 開始함에 있어서 投下된 資本은 $C+V$ 이다. 그러나 生産過程의 마지막에서 出現하는 商品의 價値는 $C+V+m$ 이다. 여기에서 價値生産物 $V+m$ 에 있어서 m 은 生産된 剩餘價値의 絶對的 크기를 表現한다. 그리고 그것의 比率의 크기 즉 可變資本의 增殖率은 可變資本에 대한 剩餘價値의 比率 C 즉 $\frac{m}{V}$ 로서 表示된다. 이와같은 可變資本의 增殖率 혹은 剩餘價値의 比率의 크기를 剩餘價値率이라 한다. 그런데 勞動日中에서 勞動者가 勞動의 價値를 再生産하는 部分은 必要勞動時間이며, 이 時間中에 支出되는 勞動은 必要勞動이다. 이와같이 勞動日中에서 勞動者가 必要勞動時間의 限界以上으로 勞役하는 部分 즉 剩餘價値를 形成하는 部分은 剩餘勞動時間이며, 이 時間內에 支出되는 勞動은 剩餘勞動이다. 따라서 剩餘價値의 可變資本에 대한 比率는 剩餘勞動의 必要勞動에 대한 比率와 같다. 그리하여 剩餘價値率은 다음과 같이 表示될 수 있다. $\frac{m}{V} = \frac{\text{剩餘勞動}}{\text{必要勞動}}$ 지금까지의 剩餘價値率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text{剩餘價値率} = \frac{\text{剩餘價値}}{\text{可變資本}} \left(\frac{m}{V} \right) = \frac{\text{剩餘價値}}{\text{勞動力의 價値}} = \frac{\text{剩餘勞動}}{\text{必要勞動}} = \frac{\text{剩餘勞動時間}}{\text{必要勞動時間}}$$

이제 不變資本에 支出되는 貨幣額 C 를 900萬원 可變資本에 支出되는 貨幣額 V 를 100萬원 그리고 剩餘價値 m 를 100萬원이라고 假定한다면 다음과 같이 表現된다.

商品價值($C+V+m$)=1,100萬원, 剩餘價值率($\frac{m}{V}$)= $\frac{100萬원}{100萬원}$, 이것을 比率로 表示한다면 $\frac{m}{V} = \frac{100萬원}{100萬원} \times 100 = 100\%$ 가 된다.

여기에서 剩餘價值는 勞動者에 대한 不拂勞動이므로 剩餘價值率을 搾取率이라고도 表現한다. 맑스가 剩餘價値의 根源을 밝히므로서 「人類의 歷史는 階級鬭爭의 歷史」라는 그의 有名한 命題의 經濟的인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剩餘價值에는 絶對的인 剩餘價值와 相對的인 剩餘價值가 있다. 이와같은 概念은 剩餘價値의 生産과 取得은 資本主義의 生産의 規定的인 目的이며 推動的인 動機에서 發生한다.

絶對的인 剩餘價值는 必要勞動時間을 넘어서 勞動日의 延長에 의해서 資本家가 取得하는 剩餘價值이다. 例를 들어서 勞動者의 平均的인 하루 하루의 生活手段의 生産에 네시간이 必要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自己의 勞動力的인 價値를 再生産하기 위하여서 平均 每日 네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a-----b라는 線으로 必要勞動時間의 繼續을 나타낸다고 하자. 勞動이 ab을 넘어서 두시간, 네시간 여섯시간 等等을 延長함에 따라서 우리들은 여섯시간 여덟시간 열시간이라는 相異한 勞動日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線을 얻을 수 있다.

第1의 勞動日 a-----b---c

第2의 勞動日 a-----b-----c

第3의 勞動日 a-----b-----c

延長線 bc는 剩餘勞動의 길이를 나타낸다. 勞動日은 ab+bc 즉 ac이기 때문에 그것은 可變量 bc 즉 剩餘勞動時間의 길이와 더불어 變動한다. 여기에 있어서 剩餘價值率은 第1勞動日에 있어서는 50퍼센트($\frac{2時間}{4時間}$)이고, 第2勞動日은 100퍼센트($\frac{4時間}{4時間}$), 그리고 第3勞動日에 있어서는 150퍼센트($\frac{6時間}{4時間}$)이다. 이와같이 勞動日을 延長한 資本家는 勞動力的인 價値의 크기와는 關係없이 勞動者가 一勞動日間에 支出되는 勞動을 絶對적으로 增大시키므로 資本家가 取得하는 剩餘價值를 增加시키는 것이다.

이에 反해서 相對的인 剩餘價值는 勞動日의 크기를 一定한 것이라고 假定한다. 例를 들어서 이제 一勞動日을 다음과 같이 想定하자.

a-----b-----c

여기에서 ac線은 8時間勞動日을 나타내며 ab는 네시간의 必要勞動, bc는 네시간의 剩餘勞動을 나타내는 것이다. 勞動日 ac가 一定한 것이라고 假定하였기 때문에 剩餘勞動時間 bc는 그 終點以上으로 延長시킬 수는 없으나 이 始點 b를 이번에는 反對方向 즉 a의 方向으로 移動할 수 있다면 bc는 實質적으로 延長된 것과 같은 意味가 된다. 例를 들어서

a-----b'-b-----c

中에서 b'-b를 1勞動時間과 같은 것이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8時間勞動日 ac에 있어서 b點이 b'에 移動됨으로써 ac의 全線의 길이에는 變化가 없으면서도 必要勞動時間은 ab에서 ab'로 縮小하여 네시간이 세시간이 된다. 이와 對應해서 剩餘勞動時間은 bc에서 b'c로 즉 네시간에서 다섯시간으로 擴大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必要勞動時間의 短縮과 그것에 照應하는 勞動日의 兩構成部分의 量的인 比率의 變化에서 생기는 剩餘價值를 맑스는 相對的인 剩餘價值라고 하였다. 이것은 맑스가 例1)를 든 것과 같이 生活必需品를 生産하는데 前에는 열시간이 所要되었으나 지금은 아홉시간으로서 充分하

1) Karl Marx: *Das Kapital*, pp. 344~345.

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過程은 勞動生産力の 增大없이는 不可能한 것이 그 前提條件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解釋한다. 즉 勞動의 生産力の 發展은 資本主義의 生産의 基礎 위에서는 勞動者가 自己自身을 위해서 勞動하지 않으면 안될 勞動日의 部分을 短縮함으로써 勞動者가 資本家를 위해서 無償으로 勞動하지 않으면 안될 勞動日의 다른 部分을 延長하는 것으로 理解한다. 換言하면 剩餘勞動時間을 延長하기 위해서는 賃金의 等價를 보다 短時間內에 生産하는 方法에 의해서 必要勞動이 短縮되는 것이다. 이것이 正統的인 맑스主義者들의 解釋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問題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前述한 圖表는 그 以上の 것을 우리들에게 說明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萬一 前述한 圖表에서 必要勞動 ab 를 5실링이라고 한다면 맑스의 定義에 따라 ab' 도 5실링이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begin{aligned} ab &= 5\text{실링} \\ ab' &= 5\text{실링} \\ \therefore ab &= ab' \end{aligned}$$

그러나 이것은 商品의 價値는 그 商品에 體화된 社會的인 必要勞動時間에 의해서 測定된다는 大前提와는 矛盾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當然히 $ab \neq ab'$ 가 되어야 한다. 萬一 $ab = ab'$ 가 成立된다고 한다면 勞動價値說에는 異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ab' = ab$ 가 되는 現象은 勞動의 生産力이 增大되었기 때문에 發生하는 現象이다. 그러면 勞動의 生産力은 勞動價値說을 否定하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解答을 보지 못한 質問을 다시 되돌아 하게 된다. 즉 새로운 機械를 採用하며 보다 큰 生産力을 가지고 있는 勞動은 一般的으로 同一勞動時間內에 보다 큰 社會的 價値를 生産하게 되는데 이 勞動의 보다 큰 價値의 生産은 機械自體가 價値를 生産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맑스에 있어서는 機械는 그 價値以上の 것을 그 生産物에 移轉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萬一 機械가 生産物로 移轉될 때 價値增殖를 한다는 것이 證明되면 勞動價値學說은 決定的인 打擊을 받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맑스는 다만 “資本論”에서 自乘된 勞動으로 作用한다 (第1卷 第10章)라고만 說明하고 具體的인 言明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確實한 것은 勞動價値學說만 가지고서는 모든 解答을 줄 수 없다는 事實이다.

다음으로 또 考慮하여야 할 것은 萬一 b 에서 b' 로 移動됨으로써 相對的 剩餘價値가 成立된다고 한다면 剩餘價値率이 變動된다는 事實이다. 前述한바와 같이 剩餘價値率은 必要勞動分의 剩餘勞動인데 b 에서 b' 로 移動했다는 것은 必要勞動이 減縮되고 剩餘勞動이 增大된 것을 意味한다. 剩餘價値率은 萬一 必要勞動이 네時間 剩餘勞動이 네時間이라면 100퍼센트로 되지만 必要勞動이 두時間 剩餘勞動이 여섯時間으로 된다면 剩餘價値率은 30퍼센트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勞動의 生産力이 增大한데 起因하는 것이다.

그런데 萬一 勞動의 生産力の 增加를 端的으로 表現하는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高度화된다면 利潤率은 傾向적으로 低落하는 法則이 作用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資本의 有機的 構成을 달리하는 세개의 生産部門이 있는데 剩餘價値率을 100퍼센트로 한다고 假定한다면 다음과 같은 式을 얻을 수 있다.

$$\text{I} \quad 70C + 30V + 30m = 130 \quad P' = \frac{30}{100} = 30\%$$

$$\text{II} \quad 80C + 20V + 20m = 120 \quad P' = \frac{20}{100} = 20\%$$

$$\text{III} \quad 90C + 10V + 10m = 110 \quad P' = \frac{10}{100} = 10\%$$

$$(\text{但 } P' = \text{利潤} = \frac{m}{C+V})$$

이 式에서도 明白한바와 같이 同一한 資本을 投下한다고 하여도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高度化하여짐에 따라서 利潤率은 低下하여 간다. 그러나 우리는 假定에 注目하여야 한다. 즉 剩餘價值率이 恒常 100 퍼센트로 假定하는 것이 妥當한 것인가를 檢討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考察한바와 같이 資本의 有機的 構成度가 高度化하여짐에 따라서 必要勞動은 減縮되는데 이것은 剩餘價值率의 固定을 不當한 것으로 만든다. 즉 剩餘價值率은 上昇되어야 하는 것이다.²⁾ 따라서 Ⅱ式 Ⅲ式에 있어서 m 이 $20m$ 와 $10m$ 이 된다는 것은 論理的인 것이 아니다. 剩餘價值는 當然히 $20m$ 와 $10m$ 以上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萬一 Ⅱ式에서 剩餘價值率이 150퍼센트라고 한다면 Ⅱ式的 m 은 $20m$ 이 아니라 $30m$ 이 됨으로써 利潤率 P' 도 Ⅰ式的 경우와 같이 30퍼센트가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推定이 成立된다고 한다면 利潤의 傾向의 低落法則은 論理的³⁾인 妥當性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問題가 되는 것은 價值와 價格과의 乖離問題이다. 價格은 周知되고 있는바와 같이 價值의 貨幣의 表現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商品의 價值와 價格과는 完全히 一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래야만 價值法則은 商品交換을 規制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에서는 商品의 價格은 끊임없이 그 價值로 부터 背離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需要가 供給을 上廻할 때는 商品의 價格은 價值以上으로 되며 反對로 供給이 需要를 上廻할 때에는 商品의 價格은 價值以下로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現象은 現實에 있어서는 需要供給이 完全히 一致할 수 없는데 起因하는 것이다. 맑스는 價值法則을 定式化하는데 있어서 需要와 供給이 完全히 一致하고 있는 狀態를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면 總體的으로 보아서 總價值와 總價格은 一致하는 것인가의 問題도 檢討되어야 하는 것이다. 一部 經濟學者들은 이에 대하여 肯定的으로 對答하고 있다. 例를 일본의 宇野弘藏에 든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定式을 만드므로써 總價值는 總價格과 一致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⁴⁾

資	本	商品 價 值	生 產 價 格	價值와 價格과의 差
I	$80C + 20V$	120	122	+ 2
Ⅱ	$70C + 30V$	130	122	- 8
Ⅲ	$60C + 40V$	140	122	-18
Ⅳ	$85C + 15V$	115	122	+ 7
V	$95C + 5V$	105	122	+17
390C+110V		610	610	0

우리가 이와같은 것을 問題로 하는 것은 蘇聯經濟에 있어서도 總價值=總價格問題로 많이 論難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에 있어서도 總價值=總價格이라고 主張하는 學者가 있는가 하면 蘇聯經濟에서는 商品이 價值대로의 價格을 가지지 않는다고 主張하는 學者가 있다. 前者를 代表하는 學者로서는 야·크론로드 및 아·바추린 등이 있다. 크론로드의 說明을 빌린다면

- 1) 맑스는 剩餘價值率은 100퍼센트가 되는 것이라고 言明한 것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資本論 1卷 p. 162 및 p. 189.
- 2) 로빈슨도 自己의 *An Essay on Marxian Economics*에서 搾取率은 生産力과 더불어 增大한다고 言及하고 있다. (한글版 p. 89)
- 3) 勿論 맑스도 이點은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맑스는 搾取率의 騰貴에 도움이 되는 諸傾向에는 明白한 限度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傾向들이 利潤率低下傾向을 相殺할 수 있으리만큼 充分히 強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4) 宇野弘藏: 經濟原論, 下卷 p. 62.

『蘇聯에 있어서 基本的으로는 計劃性을 가진 價格形成의 메카니즘은 實現되는 社會的 生産物의 價格總額과 價値總額이 必然的으로 같게 된다는 것을 社會的인 規模에서 保障한다.』라고 表現하고 있다. 此外에 에스·게스투루빌린도 總額에 있어서의 價値와 價格과의 一致를 認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理論的인 根據의 起點은 價値總額과 價格總額과 一致한다는 法則下에 生産手段의 價格이 價値보다 낮으며 消費財의 價格이 그것을 相殺할 수 있으리만큼 높다는데 있다. 이것은 蘇聯經濟에 있어서 生産財의 價格은 저렴하며 消費財의 價格은 비싸다는 것에 理論的인 妥當性을 부여하려는데 그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見解에 反對하는 學者들도 많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콘드라체프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現實에서는 一般的으로 價格總額과 價値總額과의 對的인 一致는 存在하지 않으며 다만 近似的인 一致가 있을 수 있을뿐이다……그리하여 個個의 商品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고 國民經濟全體에 대해서도 價格은 價値에서 脊離되는 것이다.』¹⁾

이런 問題에 대하여서는 蘇聯經濟의 價値觀을 研究할 때 詳細히 論及하겠기에 이 以上の 詳論을 避하거나와 筆者의 見解에 의한다면 現實的으로는 價格總額과 價値總額의 對的인 一致란 存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맑스의 價値論의 一般的 性格과 그의 問題點을 考察하였다. 이것은 맑스經濟學을 土臺로 한 蘇聯經濟를 우리가 論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V.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價格形成

맑스經濟學에 있어서는 商品의 價格은 商品價値의 貨幣的 表現에 不過한 것이 基本的인 命題로 되어 있다. 따라서 價格의 變動은 이 價値를 中心으로 하여서 變動하며 傾向的으로는 商品은 그 價値에 따라서 交換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商品生産社會에 있어서는 價値法則에 規制되면서 各種의 使用價値의 生産에의 社會的 生産手段 및 社會的 總勞動의 配分이 行하여지는 것이다.

蘇聯經濟學者들은 蘇聯經濟에서도 이와같은 要件이 適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蘇聯經濟에 있어서도 商品生産과 商品流通이 存在하는 한 貨幣와 마찬가지로 價格이라는 카테고리를 缺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蘇聯經濟의 價格을 研究하게 되면 價値法則에 대한 論議가 加一層 明白히 되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周知하고 있는바와 같이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商品은 그 價値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費用價格+平均利潤인 生産價格에 따라서 交換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商品生産社會인 資本主義社會에서는 價値法則은 變形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一部 經濟學者들은 價値法則은 單純商品生産社會의 法則이며 資本主義社會에서는 生産價格의 法則이 妥當하다고 論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蘇聯經濟에 있어서의 價格形成은 어떠한가? 蘇聯經濟에서도 모든 生産物이 價格을 가지고 있다. 資本主義에서의 商品價格이 市場을 通해서 形成되는데 反해서 蘇聯經濟에 있어서는 國家가 價値法則을 고려하여서 價格을 計劃化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社會的 生産物에 立脚해서 價格이 決定되는 것이지만 이 社會的 生産費는 이 商品을 生産하는 部門에서의 이들 商品의 價値에 不過한 것이다.²⁾

1) 氣賀健三：ソビエト經濟の研究，日本評論新社 p. 117.

2) 이러한 表現을 빌린다면 勞動價値學說과 生産費價値學說이 같은 概念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두 概念은 完全히 相異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勞動價値學說만으로는 不充分하여서 生産費價値學說을 援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商品의 社會的 生産費는

(1) 消耗된 生産手段의 價値 (2) 必要勞動에 의하여 만들어진 生産物의 價値

(3) 剩餘勞動에 의하여 만들어진 價値의 三者로 形成된다. 社會的 生産費의 처음 두 項目이 蘇聯經濟에 있어서 生産物의 原價를 形成하는 것이다. 換言하면 生産物原價라는 것은 貨幣形態로 表現된 이 生産物의 價値中에서 消耗된 生産手段에의 支出과 勞動에의 支拂을 하기 위한 支出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銘心하여야 할 것은 原價는 生産物의 價値部分의 具體的인 貨幣的 表現이지만 그 價値部分과 量的으로 一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實에 適用할 수 없는 맑스主義의 理論的인 方法論을 使用하지 않고 蘇聯經濟에서 現實의 으로 實施하고 있는 方法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蘇聯國營工業에서 生産되는 工業生産物의 都賣價格과 小賣價格은 다음과 같은 項目으로 決定된다.

(1) 原價 (2) 企業利潤 (3) 工業販賣機關의 經費=流通費와 販賣利潤 (4) 去來稅(turnover tax) 以上이 都賣價格을 形成하는 것인데 이와같은 都賣價格에다 (5) 小賣商業機關의 經費=流通費와 利潤을 加算하면 小賣價格을 形成하게 된다. 이것을 圖表로 表示한다면 보다 理解하는데 容易하리라고 믿는다.

國營工業商品의 小賣價格의 構成

原料・主要材料 補助材料 燃料 電力	材料 材料 材料 金	直接 經費	工場 原價	商業 原價	企業 都賣原價	工業 都賣價格	小 賣 價 格
部門一般 企業一般	經費 經費	間接經費	費				
販	賣	經	費	利潤			
工業販賣機關 工業販賣機關	의 의	의	의	의	工場販賣機關 을 위한 控除 稅		
去	來	稅	稅	稅			
商業機關 商業機關	의 의	의	의	의	流通費 利潤	商業附加額	

資料：東洋經濟新報社：現代社會主義講座 4卷 p. 128에서 轉載

以上과 같은 價格構成中에서 가장 핵심적인 役割을 하는 것이 (1) 原價 (2) 利潤(付利潤控除) (3) 去來稅等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利潤이라는 것은 소위 計劃利潤으로서 總費用中에서 5~6퍼센트가 附加되는 것이며 利潤控除는 企業長期 基金으로 控除되는 것을 말한다. 企業長期 基金에의 控除는 計劃利潤에서 1퍼센트 乃至 5퍼센트에 達한다. 이와같은 利潤은 企業의 純收入으로서 自己蓄積의 源泉인 것이다. 그리고 去來稅는 國庫에 集中되는 純收入으로서 國家에 의한 蘇聯企業全體의 蓄積의 手段이 된다. 去來稅는 都賣價格中에서 처음부터 固定되고 있어서 原價引下計劃에 存在되지 않는다. 價格中에서 去來稅가 占하는 比重은 戰前에는 平均的으로 消費財小賣價格의 60퍼센트¹⁾ 内外인 것이라고 推定하고 있다. 이와같이 去來稅는 商品價格中에서 莫重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보다 詳細한 考察이 必要한 것 같다.

蘇聯의 經濟學者들은 說明하기를 去來稅는 소위 消費稅가 아니라 生産財生産部門에 있어서 生産된 剩餘價値를 消費財部分에 있어서 實現하는 形態에 不過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兩者間에 있어서 正確한 剩餘價値의 移轉이 있다는 것을 認定할 수 있는지는 疑問이다. 勿論 鐵鋼生産의 部門에 있어서 生産되는 剩餘價値가 그 鐵鋼을 使用하여서 生産된 트럭터 自動車

1) 去來稅率은 어떤 商品에 있어서는 原價의 2배 내지 4배되는 것도 있다.

및 其他 鐵鋼製의 消費財의 小賣價格에 포함되며 그 賣却에 의해서 剩餘價値가 實現된다고 한다면 確實히 兩種生産物間에 正確한 價値移轉關係가 存在한다. 그러나 蘇聯에 있어서는 去來稅收入의 主要한 部門은 農業生産物인 것이다. 穀物 畜産物 혹은 纖維製品等 農業生産物의 加工品이 主로 그 中에 鐵 石炭 시멘트 其他의 重工業生産物의 含有部分의 比率는 極히 적다. 따라서 去來稅를 剩餘價値의 實現이라고 보는 解釋은 鐵鋼部門에서 生産되는 剩餘價値를 穀物消費者에 의해서 實現된다고 하는 奇異한 論理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去來稅를 가지고 剩餘價値의 實現手段이라고 解釋하는 것은 좀 無理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蘇聯經濟에 있어서 生産財價格의 構造가 正確한 生産費原則을 反映하고 있느냐하는 問題이다. 現實의으로는 生産財價格의 어떤 것은 生産費를 報償할만큼 充分하게 策定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企業은 恒常 缺損을 보지 않으면 안되는 反面에 萬一 價格이 生産費를 훨씬 超過하는 높이에서 定하여 질 경우에는 企業은 生産費의 節約에 苦心하지 않게 되어 生産手段의 浪費가 發生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는 蘇聯經濟學者들間에서도 問題化되어서 많이 論難되고 있다. 이제 그 中에서 두 세계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크론로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現在の 生産手段의 價格이 價値以下의 背離는 社會的 勞動의 支出을 價値의 形態로 올바르게 計算한다고 하는 價値法則에 의해서 支配되는 必要性을 極甚하게 破壞하고 있다. ... 原價計算에 있어서 物質的 支出의 크기가 적게 評價되고 있기 때문에 이 計算은 實際로는 總勞動支出이 增大되고 있는 경우에도 節約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그 逆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¹⁾

이와같은 見解에는 스투루밀린도 同調하고 있다. 그에 의한다면 蘇聯經濟에서는 計劃價格이 市場價格과 相關없이 定하여 저능에도 生産物原價에 依據한 計劃價格이 價値의 上下로 背離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條件下에서는 이미 需要가 價格에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反對로 價格이 需要에 作用함으로써 價値以下の 商品의 需要는 높아지며 價値以上으로 定하여진 價格의 商品需要는 減少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말하면서 蘇聯經濟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警告하고 있다.

『이와같은 計劃經濟下에서의 價値로 부터의 價格의 현저한 背離는 흔히 國民經濟中에 여러 가지의 不均衡이 存在하고 있다는 表識이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不均衡을 할 수 있는대로 完全하게 一掃하지 않으면 안된다.』²⁾

이들 諸學者들이 가지고 있는 不滿의 共通點은 現行的 生産費基準의 價格決定方法에 缺陷이 있다는데 있다. 價格이 個個의 生産費에서 현저하게 乖離되고 있기 때문에 企業의 經濟計算에 있어서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서 個別的 生産費로 定하여져 있기 때문에 價格을 社會적으로 必要的 生産費로 合致시킬 수 없게 되므로 代替的 選擇의 指標로서의 役割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더욱이 一般的으로는 生産財의 價格은 消費財의 價格과 關聯이 없으며 大概 前者는 현저히 저렴하여 不當하게 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生産財의 價格을 引上하여서 充分히 生産費를 報償할 수 있도록 改訂함과 同時에 選擇의 指標로서 需要價格의 意味를 가지게 하여 稀少한 것을 보다 높히 定하여 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 *

1) 木原正雄譯編：價値と價格の理論，pp. 46~47.

2) Ibid., pp. 11~12.

<SUMMARY>

A Critical Study of the Law of Value
in the USSR

by Chan-sop Chang

(Instructor, College of Kwandong)

Little is known about Soviet economy in Korea for several reasons though some economists are well acquainted with both Marxian theory and Soviet economy.

Today we are told that Soviet economy runs well in harmony with the Marxian theory: so there is no trouble there. Soviet economists tell us that their economic growth have developed faster than Western society, and that labourers there have been sharing according to their ability.

But many others argue that there are still many unsolved problems in Soviet economy. Despite the Soviet official reports they have sometimes suffered severe difficulties in practice and in theory. They are far from any ideal state.

I support this latter proposition. Among the many Problems "the law of value" is the most fundamental.



Does the Marxian labor theory that a commodity expresses its value by socially necessary labor time fit into the Soviet economy literally? I am sure that no one says "yes" firmly. Aside from this question, do Soviet economists believe that the commodity produced in the USSR is "commodity"? Stalin said "partially." some other economists say "yes," but in different ways, others "no." Upon their fundamental question they have many different view points.

Western economists have a view in this mind that there is a severe discrepancy between the status quo soviet economy and Marxian theory, even if we assume Marxian theory is perfect.



In this article I have stressed that the Soviet economy may not be explained by the Marxian theory completely. Some other theory should be introduced. Even if the Soviet economists assure us that they are faithful followers of Marx, they have themselves disproved this in history.

From 1943 this law of value in the Soviet economy has become a focus of discussion among Soviet economists. They have no definite solutions as yet although they have been trying for twenty years.

Can they have any real answers soon? I am assured that they can have any solution so long as they embrace Marxian theory.
